

과테말라 선교보고(제 53 회)

12 월 15 일, 2019 년

12 월에 피는 복숭아 꽃

2019 년도 도 어느덧 12 월 마지막 달입니다. 일년이 참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과테말라의 12 월은 화창한 가을과 따스한 봄날 같아서 크리스마스 상징 사슴과 함께 코스모스, 각종 장미, 민들레, 복숭아 꽃, 화려한 부관베리 등 온갖 꽃들이 한데 어울려져 주님의 탄생을 축하 하는듯 10 월 부터 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역에 지친 선교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현재 과테말라 정부는 이제 곧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 준비와 별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현지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사역에 열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례식(침례) 실시

11 월 24 일 주일에 2019 년도 세례(침례) 식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14 명의 젊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눈물로 전 교인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과테말라 를 비롯하여 중미에서는 교파 상관없이 침례를 실시합니다. 저의 현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날씨가 추워서 침례를 실시 하기가 어려워 더운 지방에 내려가서 그들의 가족들과 교우들이 참여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후에 침례 탕에서 침례를 실시하는데 매우 은혜스럽고 감사하며, 침례 후에는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여 그리스도인 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은 가족과 교회의 축제가 되어 즐겁고 감사한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지난 12 년간 매년 평균 10 명이상 세례를 베풀게되어 선교사로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교 종강

현재 진행 중인 신학교는 11 월말 강의를 마지막으로 종강하고 2020 년도 3 월에 새 학기를 개강하게 됩니다. 원근 각처에서 본 교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강의에 참여한 신학생들은 금년도 종강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각 가족과 사역지로 돌아 갔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선물로 그들을 위로했고 내년 3 월에 만나길 기대하며 그들을 배웅 했습니다.

본 신학교는 SETACA 신학교의 분교로서 모든 강사와 교과 일정을 본 교에서 주관하고 본 교회는 학생들의 숙식을 제공하여 어려움 없이 강의에 열중하도록 돕고 있는데 본 신학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도와서 오늘까지 잘 진행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단기선교팀 방문

LA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어른 7 분이 금년 9 번째 선교 팀으로 10 월 11 일 - 17 일 단기 선교로 방문하셔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시었습니다. 열악한 산 마을 (해발 8000 피트) 두 곳에서 의료 선교로 가난한 현지인들을 의료로 돕고, 미혼모 보호소 (약 150 명)에 방문하여 아기 옷과 젊은 엄마들 옷을 나누어 주고 점심을 제공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 할때 실의에 빠져 희망 없이 지나가는 그들에게 한 사람씩 붙들고 기도하며 용기를 줄때 많은 젊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습니다. 평소에 현지 선교사가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와 같이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현지인들을 도울 때 큰 은혜가 있어서 이곳을 방문 해 주시는 모든 선교팀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VBS

과테말라 공립 학교는 10 월 중순에 방학하여 다음 해 일월 초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기제도 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11 월이나 12 월에 VBS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현지 두 교회는 제 2 교회에서 11 월 28 일 -30 일 성황리에 실시했는데 제 2 교회는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안 교사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VBS 를 실시 하지 못하여 제 1 교회 교사들이 도와 주었는데 금년 부터는 100%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가르쳤고 주위의 교회들 어린이 들이 많이 참가하여 더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제 1 교회는 12 월 2 일 -7 일 동안 VBS 를 실시하여 150 여명의 어린이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날 은 교회 부근에 있는 사설 운동장을 빌려 체육대회를 열어 기쁨과 웃음과 친교의 시간이었고 엄마들도 함께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한 30 여명의 교사들과 어린이들 간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본 교회 여 선교회에 감사 합니다.

어린이 영어교실

방학을 이용하여 최경희 선교사는 10 월 말부터 12 월 중순까지 약 8 주간 매주 목금토 3 일을 교회에서 어린이 영어 교실을 실시하여 약 40 여명의 어린이 들이 참가하여 열심히 수업했는데 멀리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오는 어린이도 있어서 기특하고 고맙고 하여 칭찬을 많이해 주고 격려하며 수업하여 12 월 15 일 주일 예배 시간에 발표회를 하여 본 교회 성도가 아닌 학부모들이 참가하여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회

현지 선교사는 지난 13 년 동안 어른 사역에 중점을 두고 영적으로 성장 시키려 노력 하였으나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 하기 힘들다고 생각 되어 금년 부터 아직 딱딱 하게 굳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성장 시켜 가정과 교회를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 바로 이끌어 가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2 월 13 일-14 일 일박 이일 동안 따뜻한 바닷가에 가서 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15 세 이상 청소년 47 명(교사포함)이 참가한 수련회에 특별 강사로 3 살때 과테말라에 와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한국인 2 세 (과테말라 사람과 같음)인 Alex Park 전도사님과, 캐나다 밴쿠버 에서 오신 한 베드로 선교사님과 현재 담임 목사인 francisco coyoy 목사님을 강사로 “내가 누군가?” 란 주제로 첫 시간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토요일 새벽 시간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이다”라는 주제로, 토요일 낮 시간은 그 동안 우리들의 잘 못된 모습이 “회복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 가야 한다”는 주제로 강의를 하여 큰 은혜가 되었고 특히 금요일 저녁 해변에서 camp Fier 시간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심각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 놓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며 감사가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Osbel Agustin 목사 제 1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

12 년전에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개척할 당시 선교사와 Osbel Agustin 목사님과 함께 제 1 교회를 개척하여 7 년동안 잘 성장하고 있을 때 갑자기 Osbel 목사님이 신학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 하겠다고 사임하여 어려운 형편이 되었는데, 제 2 교회를 막 개척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Francisco coyoy 목사님에게 제 1, 2, 교회를 맡아서 수고 하시게 하여 5 년 6 개월 사역 하셨는데 그 동안 Osbel Agustin 목사님이 공부를 완전히 끝내고 안 돌아 오겠다는 것을 강권하여 다시 본 교회로 오시기로 하여 2020 년도 1 월부터 정식 제 1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그 동안 수고하신 Francisco coyoy 목사님은 제 2 교회 전임 목사로 돌아가게 되어, 12 월 15 일 정식으로 두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전 교인과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는 두 현지 목사님을 두 교회에 취임 시키며 무한 감격한 시간이었고 그 동안 마음 고생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20 년도에는 두 교회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제 2 교회 성전 건축

제 2 교회 성전 건축은 1 층만 완성하고 예배 하는 중에 금년에 2 층 벽을 올리고 지붕까지 덮게 되어 감사하고, 아직 여러가지 공사 (벽 공사, 창문, 바닥, 전기공사, 2 층 교실, 밖의 벽 과 철문, 현관 바닥 등등)

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해 주십시오.

과테말라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된 성탄과 희망의 새해에 더욱 강건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최상득, 경희선교사



12 월 선교사 정원



침례식



신학교



LA 청직이교회선교팀



미혼모들에게 옷 선물



어린이 VBS



청소년 수련회



영어교실 발표회



Osbel Agustin 목사 취임

